

# 금후의 조림, 육림문제와 그 대책

이 재 석 / 한국양묘협회이사

## 사람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농촌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전체 4 천만 인구의 20%인 800만이라고 하지만 그 실태 대부분이 60세를 넘은 노령층이 많고 노령층에도 여자가 많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산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란 말할것도 없이 어렵다.

따라서 산에서 조림 육림은 숙련된 인부가 아니고 일반 인부로 일당 15,000~20,000원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고 임금으로 조림 육림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고 예산으로 조림하는 영림서의 조림의 경우도 정부노임단가가 일당 8,000원선이고 보면 실제 임금의 절반이 안되어 조림이 될 이가 없고 작금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인공조림 물량을 늘려 산림자원화를 해야할 임업의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당면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성력(省力)조림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기왕에 조림한 임지도 육림을 하지 않으면 영영 조림성과를 거둘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도 그 대책과 방법론을 찾아야 하게 되어있다.

## 중묘(中苗) 조림을 하자

지금과 같이 1~4년생 묘목으로 조림을 하면 1~3년간 조림지 풀베기(下刈)작업을 해야한다.

지금 북부지방에서 많은 조림을 하고 있는 잣나무의 경우 보통 3~4년생 조림을 많이하고 있는데 3년생(2-1)인 경우 간장(幹長) 16cm이상 4년생(2-2)인 경우 간장이 22cm이상으로 되어있어 조림후 잡목과 풀속에 파묻혀 일년에 최소한 2번 밀풀베기를 해주어야 하니 인부임이 너무 많이 들게된다.

이 밀풀베기 인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잣나무 묘목을 6년생(2-2-2) 즉 중묘(中苗)로 조림할 필요성을 가진다.

잣나무 6년생의 경우 간장이 50cm를 넘게 되므로 풀에 피압될 염려가 적고 따라서 밀풀베기 회수를 줄일수가 있다.

뿐만아니라 조림본수도 지금 소묘(小苗)의 경우 ha당 3,000본 식재를 2,000 본으로 줄이고 따라서 추후 간벌의 회수를 줄임으로서 육림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중묘조림의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은 전 산림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이 중묘를 심을 수는 없다.

특히 바람이 심한 풍충(風衝)지대와 지극히 건조한 지대는 중묘 조림지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묘목도 충분한 물쭈세미를 넣어 비니루로 싸고 산지에서 운반이 쉽도록 50본이 내로 묶어서 묘목 건조방지와 작업의 능률을 기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중요조림은 전라북도에서 일부 시행을 한곳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요조림을 성공한 조림지를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잣나무 이외도 편백의 경우도 2년생(1-1)으로 대부분 산출하고있지마는 4년생(1-1-2)중묘로 조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편백의 경우는 잣나무와 달라임내 관계습도가 조림목 성장에 큰 영향을 하므로 중요조림의 경우도 식재본수는 줄일수가 없다.

활엽수 조림의 경우도 자작나무는 1년생(1-0)을 2년생(1-1)으로 느티나무의 경우도 1년생(1-0)을 2년생(1-1)으로, 상수리 1년생(1-0)묘는 2년생(1-1)으로 조림하는등 지금 소묘조림을 중요조림으로 전환하여 조림인건비를 줄이는 방도가 검토 되어야 하겠다.

### 조림수종에대한 인식이 달라져야한다

지금 각도가 활엽수 조림량을 상당량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이 지구촌에 온대에서는 수많은 조림국가들이 침엽수림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사시사철 동화작용을 하는 상록침엽수가 재적·생장율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경우 이 수종들은 지력의 요구도 한없이 높아서 웬만한 비옥한곳이 아니면 잘 안자라는 수종이다.

다시말하여 이 수종들의 조림적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수종들의 조림물량을 확대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산 중복 이상에서도 넓게 보급할수 있는 수종은 자작나무 밖에 없다고 보아진다.

조림수종중에 지금 모든 조림하는 사람이나 임업공무원들이 낙엽송(일본잎갈나무) 조림을 목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썩 잘못된 경우이다.

독일을 가본 사람들은 보아서 알겠지만 독일 산림묘포장에 어디를 가봐도 낙엽송 양묘가 묘포의 절반을 차지한다.

종전에 낙엽송 제재가공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때 낙엽송 재질문제를 들어 만고에 쓸모없는 나무로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인공조림한 나무중에 산에서 제일 값이 많이받는 나무는 낙엽송이다. 지금 전주에 있는 대한 특수목재사에서는 종전에 낙엽송재목이 제재후에 휘고 트고 나무결이 일어나고 하는것을 보완하는 제재기계를 도입 낙엽송으로 훌륭한 후로링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늘 원료가 문제가 되고있다.

지금은 낙엽송 조림을 제창할때이다.

또 한가지 권장하고자 하는 수종은 방크스소나무이다.

필자가 캐나다 산림시찰을 갔을때 캐나다에는 주마다 산림종자 관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림종자는 이곳에서 일체를 관리하는것을 보았다.

이 종자관리소에서 저장 관리하고 있는 종자의 90%가 방크스소나무 종자다. 산림종자관리소가 아니라 방크스소나무 종자관

리소라 해도 좋을 정도로 창고마다 방크스 소나무 종자로 꽉 차있다.

다시말하면 캐나다의 조림 주수종은 방크스소나무이며 원목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이 방크스소나무이다.

우리나라에도 광능임업시험장에 심어져 있는것도 성적이 좋지마는 묘포밭에서 양묘를 해 보아도 잣나무 리기다송 강송등과 비교하여 성장이 빠르다. 또 재질도 우리 소나무 못지않게 양호하다고 한다.

필자가 늘 생각하고 있는것은 우리나라 리기다송 조림지를 대상으로 벌채를 해서 이 방크스소나무로 수종갱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 그밖에 조림에 참고할사항은 이렇다

우리는 책상에서 연구실에서 택벌과 혼효림이 교과서에서 가장 이상적인 숲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엄정한 택벌과 혼효림은 그것이 곧 이상이지 실제로는 할수가 없다.

우선 택벌과 혼효림은 우선 이령(異令) 임분인데 벌채시 많은 주위 임목을 상하게 하고 골라서 베어 반출한다는것은 벌출비용을 너무 많이 요한다.

조림지존작업을 할때 쓸만한 나무는 남겨두고 못쓸나무만 베고 조림을 하라고 해서 조림한 이런 조림지는 거의 조림을 실패하고 추후 조림이 성공했다해도 잔존한 나무를 베어 반출할때 뒤에 조림한 나무를 상하게하고 경제적으로도 수지를 맞출수가 없다.

그래서 음수든 양수든간에 개별단지가 너무 커서는 안되겠지만 어느 작업급이 되도록 개별조림을 하지않을수가 없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경제와 현살을 떠난 임업경영을 할수 없는것임으로 택벌과 혼효림은 군상(群狀) 택벌 군상(群狀) 혼효림이 되어야 될줄 안다.

다만 그 군상(群狀)의 크기가 문제가 될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조림한 임지나 천연림을 둘러보면 지금 무육간벌을 해 주지 않으면 영영 조림성과를 거둘수 없는 임지가 참으로 많다.

이 무육작업에 국고 예산을 1년에 몇10억씩 보조를 해야 이것은 코끼리 입에 비스켓 물리는것과 같다고 본다.

농촌에 사람 구하기도 문제가거니와 산주들이 주머니를 털어 이 육림을 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 귀중한 산림자원이 물론 개개산주의 소유이지만 이 산림자원은 우리자손만대의 민족자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토자원관리라는 차원에서 육림관리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한정된 국고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할수가 없음으로 민방위대와 군을 육림기간에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동원하고 육림에 대한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육림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해방후 지금까지 막대한 국고금을 투입하여 심은나무다.

또 범 국민적으로 동원되어 심은 나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자원이 되어 경제발전은 물론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숲에서 건강을 주기위하여 이와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